

“우리 지역 학생들 진로진학교육, 우리 고장이 책임져요”

강진교육청, 고입학부모·진학 담당 교사들 대상 진로특강·관내 학교 설명회 개최...생중계 운영 특강 후 강진관내 4개 고등학교 입학설명회 진행

강진교육지원청(교육장 윤재현)은 9월 18일 저녁 6시 강진농업기술센터에서 고입학부모 및 진학 담당 교사들을 대상으로 '진로특강 및 관내 학교 설명회'를 개최하고 이를 유튜브 라이브 방송으로 실시간 생중계 하였다. 진로특강과 설명회는 강진진로체험지원센터(대표 이미선)에서 주관했으며 코로나 19 사회적 거리 2단계 상황에 따라 50명 이하로 설명회를 운영해 야하는 현실적 어려움을 강진군청 라이브 방송으로 연결하여 행사의 취지

를 적극 살려냈다. 또한 미리 신청한 학부모들에게 사전 질문을 통해 진로진학에 대한 학부모의 관심을 유도하고, 궁금증을 해소하여 큰 호응을 얻었다. 이날 특강에 초청된 MBC '공부카메라' 패널로 유명한 진동섭 전 서울대 입학사정관(현, 한국진로진학정보원 이사)은 진정한 공부 역량을 강화하는 것이 중요하고, 도전적 선택을 통해 진로와 대입을 준비할 것을 역설했다.

또한 2015 개정교육과정 개발과 입학사정관의 경험을 바탕으로 지역에 서 자녀들이 안정감 있게 성장하고 학교와 지역 기관이 학생들을 책임지는 사례를 통해 진로를 고민하고 학교 선택을 할 수 있는 노하우를 적극 안내 하였다. 특강 이후에는 강진관내 4개 학교(병영상고, 전남생명과학교, 성전고, 강진고) 진학 교사들이 각 고등학교의 특색과 진로 및 진학에 대한 비전을 제시하는 입학설명회가 진행되었다. 강연회에 참가한 강진중 김00 학부모는 "아이가 중 3인데 공부를 좀 잘 하는 편이라 외지로 보낼까 생각중이었다. 오늘 특강을 들어보니, 자기 지역에서 아이를 키우는 게 아이의 역량에 큰 도움이 된다고 하니 지금 어느 학교로 보낼까 다시 고민을 하게 되었

다."며 진학설명회에 참여한 소감을 말했다. 강진군청 이승욱 군수는 "우리 강진군은 작은 지역이지만, 많은 예산을 들여 강진교육가족들과 함께 지역 학생들의 성장을 위해 애쓰고 있다. 우리 지역에서 고등학교를 간다면, 자녀들이 정서적, 교육적으로 안정되어 공부에 전념할 수 있고, 졸업 후에도 많은 지원을 해드리고 있으니 관내학교로 진학하는데 큰 관심을 가져주시기 바란다."라며 관내 진학 학생들에게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는 포부를 밝혔다. 이날 행사에서 윤재현 강진교육장은 "오늘 강연이 부모님들께서 살아오면서 내 지역의 아이들이 내 지역의 고등학교를 진학하는 것이 지금과 같은 대입 제도 하에서 가장 유리하다는



것을 깨닫는 시간이 되시길 바란다."면서 "부모님께서 자기 지역 학교를 보내는데 망설임 없도록 좋은 학교를 만드는데 저희는 온 힘을 다하겠다."라며 지역 학교 선택을 강조하였다. 강진=김영일기자

광주 관내 학교들, '다함께 한걸음' 사업 진행

광주광역시, 마을과 함께 체험중심 프로젝트 진행



광주 관내 학교들이 코로나19로 인한 등교·원격 병행수업으로 어려움을 겪는 중 광주광역시교육청의 '다함께 한걸음' 사업을 통해 학생들에게 따뜻한 온기를 전해주고 있다. 21일 광주서부교육지원청에 따르면 '다함께 한걸음' 사업은 수업·생활교육·학교문화·업무혁신 등 학교에서 이뤄지는 다양한 교육 활동을 주제로 학교공동체가 함께 소통하고 협력하는 학교문화혁신 프로젝트이다. 사업의 운영 단위는 학급형과 학교형이며, 교당 300~500만 원의 예산과 컨설팅·협의체·네트워크 운영 등을 지원하고 있다. 특히 광주광역시교육청 '다함께 한걸음' 사업을 통한 체험중심 프로젝트

를 마을과 함께 진행하고 있어 학생들에게 좋은 영향을 미치고 있다. 광주광역시교육청은 학교교육공동체가 '다함께 한걸음'을 나아가기 위해 고민하면서 역사와 전통이 살아있는 양동 청춘발산마을과 연계한 체험중심 프로젝트를 진행하고 있다. 광주광역시교육청은 원격수업 상황에서 학생들의 학교의 주인으로서 소속감과 자긍심을 느낄 수 있도록 발산마을을 학교교육과정과 접목해 학생들의 배움과 연결시켰다. 광주광역시교육청은 품고 있는 발산마을은 6·25전쟁 후 피란민이 모여 형성된 대표적인 동네로서 마을 곳곳에 여러 가지 이야기를 담고 있다.

이런 발산마을이 시간이 흐르면서 활력을 잃어가고 있었는데 최근 도시재생 프로그램을 통해 새로운 문화 공간으로 변화하는 등 활력을 되찾아 가고 있다. 광주광역시교육청은 1~2학년 학생들을 대상으로 발산마을을 살펴보고 마을에 어울리는 '나만의 건축물 디자인하기'를, 3~4학년 학생들을 대상으로 발산마을 할머니들의 언어를 살펴보고 언어 속에 담긴 우리 문화를 이해하는 '우리 마을 언어사전 만들기'를, 5~6학년 학생들을 대상으로 다양한 식물을 활용해 마을에 어울리는 '폴라주 작품 만들기' 등을 마을 활동가와 이웃 분들의 지원과 도움을 받아 추진해 나가고 있다. 학생들은 원격 수업 동안 개별 활동을 진행하고, 등교 수업 때에 그동안 작업한 내용들을 친구들과 공유하고 있다. 또 학생들이 혼자 해결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샘물경로당, 청춘빌리지 등 마을 어르신들의 도움을 받아 프로젝트를 진행하고 있다. 광주광역시교육청 한 학생은 "블록키트를 이용해 우리 학교를 만들고 1층 현관에 전시돼 있다"며 "그 자리를 지나갈 때마다 매우 뿌듯했다"고 말했다. 조인호기자

목포SW교육체험센터, 학생 앱 개발팀 연구 활발

관내 초 6학년 11명 대상 '도(鳥)전 앱 개발 챌린지' 진행

목포교육지원청(교육장 김갑수)은 9월부터 목포 관내 초등학교 6학년 11명을 대상으로 목포SW교육체험센터에서 '도(鳥)전 앱 개발 챌린지'를 진행하고 있다. 이번 프로그램은 전남미래교육재단 미래인재육성 프로그램 공모에 선정되어, 7월부터 희망하는 초등학교 6학년 대상으로 학생 앱 개발팀을 구성하였다. '도(鳥)전 앱 개발 챌린지'는 목포 주변 섬인 달리도, 울도, 외달도를 역사, 생태, 지리 등을 직접 조사·체험·탐구하여 섬 소개 앱을 개발하고, 구글 플레이 스토어에 탑재하는 등 참여

하는 학생 앱 개발팀에게 성취감을 높이고 창의적 사고력을 강화하는데 목적이 있다. 이를 위해 강사들은 초등학교 6학년 사회, 국어, 과학, 수학 교육과정을 분석하여 7가지 주제를 선정하고 앱 인벤터 기능과 소프트웨어(SW)요소를 융합시켜 총 45차시 분량의 프로그램을 개발하였다. 또한 앱 기능을 익히는 융합멘토학습, 달리도, 울도, 외달도를 돌아보는 현장체험학습, 집중적 앱 개발을 위한 해커톤 프로그램을 구성하여 학생들이 몰랐던 흥미나 재미를 발견하게 하고, 스스로 더 깊이 공부할 수 되도록

체계적으로 준비하였다. 학생 앱 개발팀은 8월 말부터 10월 말까지 매주 토요일을 활용하여 '섬 역사 읽어주는 앱', '섬에서 관찰할 수 있는 별자리 앱', '섬 만보기 앱', '섬 서식 식물 앱', '목포 주변 섬을 소개하는 앱'을 개인 또는 팀 단위 프로젝트로 집중해서 연구하고 있다. 프로그램에 참여한 OO 학생은 "도(鳥)전 앱 개발 챌린지 수업을 통해 목포 주변 섬에 대해 많이 알게 되었고, 좋은 친구들과 함께 즐겁게 앱을 개발할 수 있어 쉬는 시간에도 쉬지 않고 오직 앱 개발에만 몰두하고 있다"고 말했다. 목포=박정수기자

여수교육청, 'With.코로나대비 마음백신 프로젝트 I'

'친구사랑 상담주간' 운영

여수교육지원청 Wee센터(교육장 김용대)는 코로나-19 재확산으로 온라인 개학이 지속되고 있는 상황에서 "With.코로나대비 마음백신 프로젝트 I -친구사랑 상담주간"을 지난 21일부터 시작했다. 2학기 상담주간은 학교 규모에 따라 대면상담과 비대면상담을 동시에 운영하는 상담주간을 실시하여 여수시 관내 초, 중, 고 학생이 모두 참여할 방안을 마련했다.

소규모 학교로 '찾아가는 이동 상담'은 코로나-19로 인한 스트레스·우울감 등 자신의 경험을 공유하고, 친구의 경험을 공감하는 '별다줄(별거 아니라도 다 들어줄게)', 긴장과 불안을 낮추는 활동을 통해 학생들의 정서적 안정을 도모하여 학교 적응력을 향상할 수 있는 "인사이드 아웃", 심리검사 결과 위험군 학생은 개인상담으로 연계될 수 있는 활동을 진행한다. 대면상담이 어려운 학교에는 '언택트 상담주간'을 운영하여 온라인 상담뿐만

아니라 '온라인 별다줄', '친구야 고마워!', '내 마음은 어떻게?'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준비했다. 여수Wee센터에서는 개학연기가 진행되는 동안 학생들의 심리적 안정을 위해 대면상담·비대면상담을 동시에 운영하여 여수시 관내 초, 중, 고 학생들의 마음방역 뿐만 아니라 마음백신을 제공하여 심리적 불안, 스트레스 등을 예방할 수 있도록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동부채본부 김승호기자

삶을 가꾸는 교육,
현장에서 '답'을
찾겠습니다!

광주광역시교육청